

'신당' 대권구도 새판짜기

문·안 '어색한 동거'·손학규 등 대선주자군 경쟁 예상

'김한길·안철수' 공동체제 가능성...친노는 속내 복잡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제3지대 신당'을 창당키로 하면서 야권 대선후보 경쟁 구도가 다시 짜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 당시 '불완전한 단일화'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안 의원이 '어색한 동거'를 하는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 등과 복잡한 방정식의 대선후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창당 선언으로 친노(친노무현) 계열 대표에 문 의원과 안 의원의 지지가 쏠렸다. 이번 신당 합의가 그동안 친노와 대척점에서 온 김한길 대표와 안 의원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내 비노(비노무현) 계열 대표적 인물인 손 고문까지 합체해 신당의 한 축을 형성, 문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친노+구주류'의 또 다른 축과 긴장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동영·정세균 상임고문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

지사까지 경쟁에 뛰어들 경우 야권의 대선 후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최대 세력이었던 친노 진영은 안 의원의 '합류'로 당내 최대 계파의 입지가 흔들리게 됐다. 문 의원이 전날 양측의 통합에 환영 입장을 공개 표명했지만 친노 진영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 의원과 안 지사 등 '인물'을 내세우는 한편으로 여전히 탄탄한 바다세를 토대로 당내 주도권을 탈취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당장, 3월말 또는 4월초로 예정된 신당창당 전대에서는 '김한길+안철수' 공동체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져 지방선거를 친노 세력을 중심으로 치를 수는 없게 됐다. 나아가 이 같은 분위기는 차기 총선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친노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양대 축의 경쟁 속에 대선후보군

들의 역할과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동지적 관계'를 맺어온 안 의원이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함에 따라 재선 고지의 목전에서 안 의원 측 독자후보와의 '야권 내 경쟁'을 피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최대 수혜자'라는 시선도 있다.

지난해 9월말 독일에서 귀국한 뒤 재기의 모멘텀을 얻었던 손학규 상임고문으로선 그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안 의원의 합류로 당내에 최대 우군을 얻게 됐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과 당분간을 역할을 나누면서 친노와 경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선 후보를 놓고 안 의원과 우호적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차기 대권 재 도전 가능성과 함께 당권 도전설도 돌았던 정세균·정동영 고문도 예상치 못한 '신당 변수'를 만나 역할과 입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수받는 김한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동료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의원 지방선거 대거 출마... 판 커지는 7월 재·보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의지를 굳히고 있어 지방선거 한 달 뒤의 7·30 재·보선이 사실상 '미니총선'처럼 판이 커질 전망이다. 단체장 도전을 위해 현역 의원이 떠나는 선거구에 더해,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재·보선 실시대상이 되는 선거구까지 포함하면 7월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는 10곳이 넘는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방선거에 출전하는 현역 의원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늘어나고,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에

서는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합의하면서 의원직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윤진식 의원이 3일 기자회견을 하고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현역 의원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인천시장 출마 의지를 거의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도 호남과 제주, 경기도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의 출마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용섭(광주시장), 유성열(전북지사), 이낙연·박지원·주승용·김영복(전남지사), 원혜영·김진표(경기지사), 김우남(제주지사)

의원 등이 출마표를 던졌거나 유력한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

이밖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이 재영, 민주당 신장훈 전 의원이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 경기 평택을과 경기 수원에서 오는 7월 30일 재선거가 확정됐다. 지난달 말 현재 나주(배기운·민주), 순천시·곡성군(김선동·통합진보), 서울 서대문을(정두언·새누리), 충남 서산(안근석(통합진보·새누리)) 등 4곳이 3심에 계류 중이고, 전북 전주완산을(이상직·민주) 등 3곳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최형식, '변화의 바람...' 내일 출판기념회

재선에 도전하는 최형식 담양군수는 5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자신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담은 저서 '변화의 바람, 희망의 물결'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최 군수는 책을 통해 도의원, 군수 등을 거치며 지난 20여 년간 펼친 다양한 행정과 정책을 소개했다.

전남도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돼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과정과 국유지 불법 불하사건으로 전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명 '이석호 사건'을 철저히 파헤친 일화 등도 곁들여졌다. 또 '죽강선생(竹江先生)'이라 불릴 만큼 남다른 자신의 대나무 사랑도 책에 담았다.



최형식

송대수, '지방자치 전문가' 출판기념회

여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대수 전남도위원이 3일 여주시민회관에서 '지방자치 전문가 송대수-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여주시민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민주당 김성근·주승용 국회의원과 최재무 전남도의회 의장과 당원을 포함한 시민 2000여명이 참석했다. 송의원은 이 책을 통해 20여년의 의정생활에 대한 회고와 더불어 여수 희망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또 그는 이날 마련된 '송대수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통해 참석자들과 함께 여수 희망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송대수

임우진 "무공천 따른 제도적 보완책 필요"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인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제 폐지는 국민의 오랜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후보단일제에 따라 현직 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시장은 "현직 단체장의 4년 동안 직무 수행결과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출마예정자들의 현직과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 안에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임우진

정형택, 광주 북구청장 출마 선언

통합진보당 정형택 예비후보가 3일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를 유신독재로 회귀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겠다"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난 행정경험과 노동 조합운영의 경험을 살려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북지정책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빠지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쓸데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형택

임호경, '나의 꿈, 화순' 출판기념회 성료

화순군수 출마를 선언한 임호경 전 화순군수의 자전 에세이 '나의 꿈, 아름다운 화순' 출판기념회가 지난 2일 화순 한미문화스페이스센터에서 군민과 민주당원, 지지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배기운 화순·나주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후보인 주승용 국회의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임 전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화순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군수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호경

홍석태, '영산강에서...' 내일 출판기념회

나주 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홍석태 나주 발전연구원장(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이 5일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영산강에서 나주의 길'을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연다.

홍 전 국장은 이 책에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느낀 다양한 이야기와 나주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나주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신없이 달려온 공직 생활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간의 경험과 생각이 나주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썼다"고 말했다.



홍석태

새누리 광주시당, 단체장·지방의원 후보자 공모

오늘부터 10일까지

책익 당원으로만 25세 이상이면서 공직 선거법상 피선거권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고, 선거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희망자는 새누리당 중앙당 및 광주시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 서류를 작성해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들은 광주시당에 접수하면 된다.

시당은 조만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NAVER 검색상에서 단비플라워를 쳐보세요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신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항 공고 제2014-04호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보통신 및 소방 감리용역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사업에 의거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용역 협력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 다 - 음 -

1. 입찰 명 :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보통신 및 소방 감리용역
2.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광주시 동구 천변로52-2(학동) 일원
다. 대지면적 : 60,216.30㎡
라. 규 모 : 연면적 220,878,894㎡, 견폐율 19.02%, 용적률 293.35%, 지상35층(지하2층), 11개동(1,410세대)
3.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주민 영업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다.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감리업 등록을 필한 자
라. 최근 3년 이내 단임규모 2,0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5건 이상의 소방·통신 감리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마. 상기 가~라항 입찰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단일 업체(공동도급 가능 / 자격비달시 입찰 제외)
4. 입찰서 제출
가. 일 시 : 2014년 3월 7일 오후 17시까지
나. 장 소 : 당 조합사무실 방문제출(광주시 동구 남문로 747 성원빌딩4층(학동)우편주소 불가)
다. 제출서류 : ①입찰참여신청서 ②실적증명서 ③입찰참여각서 ④사업자등록증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⑤법인등기부등본 ⑥인감증명서 및 사영인감계 ⑦지명원(회사소개서)
라. 원장정명 없음(입찰안내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당 조합사무실에서 배포)
5. 선정방법 : 입찰구비서류 및 견적서 검토이후 조합에서 선정하여 개별통지
6.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지침서 및 조합의 결정에 따른다.
다. 제출된 서류가 허자·부정·허위로 판명될 시는 당 조합에서 임의로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라. 기타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 연락처 (전화 : 062-222-2304 ~5, 팩스 : 062-232-2365) 2014년 3월 4일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 종 진